위험도로 개선사업

강동수

Ⅰ. 개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교통시설의 확충과 도로의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고려가 충분치 못하였고 유지 관리의 소홀 등으로 도로기하구조와 각종 부대시설의 불량은 교통사고가 집중하는 위험한 도로가 되었고 이러한 구간은 항상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불합리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고 국가에게 교통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각종 손해 배상 소송이 그치지 않고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1〉 도로종류별 연장거리[1)]

구분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연장거리(km)	102,293	2,968	14,224	17,506	17,709	49,885
점유율(%)	100.0	2.9	13.9	17.1	17.3	48.8

〈표2〉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구분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기타
사고 발생	건	214,171	4,113	37,422	17,179	15,047	66,660	12,750
	%	100.0	1.9	17.5	36.5	7.0	31.1	6.0
사망자	명	6,376	402	2,028	1,263	853	1,654	176
	%	100.0	6.3	31.8	19.8	13.4	26.0	2.8

강동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kangds@rtsa.or.kr, 직장전화:02-2230-6073, 직장팩스:02-2230-6113

1) 경찰청(2006), 교통사고 통계분석, p.20

이에 정부에서는 위험도로구간의 열악한 도로기하구조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Ⅱ.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현황

1. 정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곳이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로를 도로관리청별로 선정·개선하는 사업

2. 선정기준

위험도로 선정기준은 국도의 경우 각 영향요소별로 도로기하구조 55점, 도로환경 25점, 사업비 및 지역민원에 대한 평가 20점을 합하여 총 100점을 최대치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지방도로의 경우 사업비가 적게 투입되고 효과가 큰 사업과 교통사고, 민원, 도로설계기준에 미달되는 구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험도로를 선정하고 있다.

〈표3〉 위험도로 평가기준 (일반국도)[2)]

평가항목	배점	
계	100	
도로기하구조	소계	55
	곡선반경	20
	전후도로상황	15
	시거	5
	종단구배	5
	차선폭	5
	길어깨 폭,상태	5
도로환경	소계	25
	EPDO	15
	교통량	10
기타	소계	20
	투자사업비	10
	지역요구	10

2)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3), 교통사고 취약구간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p.168

3. 사업범위

- 도로구조 취약지역 : 도로곡선반경, 차선폭 등 도로구조 취약지역
- 도로안전시설 취약지역 :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등 정비·확충 필요
- 과속사고 위험지역
- 무단횡단사고 위험지역

4. 추진실적 및 계획

1988년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종합대책 회의에서 국도에 한해 건설교통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지방도로에서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시행되었고 2004년부터 자동차교통관리 개선특별회계를 통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6년 자특회계가 폐지되면서 2007년부터는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80개소에 약 2조 8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Ⅲ.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사업효과분석 미흡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취락지 통과구간, 산간지역 급커브 등 도로의 시거가 불량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여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열악한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구체적인 MOE가 정의되지 않았고 특히, 사업대상지점 선정시 교통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사전/사후 분석이 고려되지 않아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매년 교과서적인 개선안만이 반복 적용되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대책사업중 단위 지점당 공사비가 가장 많은 사업임에도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2) 사업추진예산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에는 균특회계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국가예산이 50:5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지원예산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의 절반을 확보하는데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예산에 상응하는 예산만이 경우 확보될 뿐이며, 예산확보의 여유가 있음에도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이 원활히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3) 선정기준

위험도로 사업대상지점을 선정함에 있어 위험도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의 기하구조 특히, 시거, 곡선반경, 전후 도로상황 등 도로의 횡적선형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지방도로의 경우 정성적인 판단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지점을 선정하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점이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2. 개선방안

(1) 사업효과측정을 통한 피드백시스템 구축

교통여건별로 상이한 여건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사업이 개선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사전/사후분석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즉,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선사업의 효과분석 방법론 정립과 철저한 사전/사후 효과분석,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개선과 피드백 시스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예상배정방식 개선

지역별 예산지원의 차별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지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관리예산이나 기본예산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예산 등은 전액 국고지원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3) 위험도로 선정기준 개선

최근 일반국도의 위험도로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논의된 적이 있었으며, 그동안 정성적 선정기준에 의존해오던 지방도로에 대한 선정기준도 최근 연구용역으로 발주되어 새로운 선정기준이 개발될 예정이다.

즉, 위험도로를 선정함에 있어 도로의 횡적선형조건만 중시되거나, 일부 정성적 판단에 의해 사업대상지점이 선정되던 방식에서 교통사고를 비롯해 각종 교통환경과 여건에 대한 종합적이 고려가 필요하다.

(4) 사업추진체계 개선

위험도로 개선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지점이 선정되고, 개선안을 설계함에 있어 교통안전과 교통공학,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검토 분석하고, 개선공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업의 효과분석과 체계적인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교통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본 사업의 관리와 책임을 맡기는 것보다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같이 전문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추진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대책사업에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단위지점당 공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지만

효과검증이 미흡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이 있다.

최근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안전진단, 교통사고 원인분석, 교통안전점검과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구간단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많은 상충과 혼란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과측정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예산배정방식과 선정기준의 개선, 사업추진체계의 개선 등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강동수